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S.E.S)과 공공도서관 장서 이용의 주제적 분화 양상*

- KDC 10대 주류별 대출 비중의 차이를 중심으로 -

Community Socioeconomic Status (S.E.S) and Subject-based Differentiation in Public Library Circulation: Focusing on Proportional Differences across KDC Main Classes

양 영 훈 (Young Hoon Yang)**

구 정 화 (Joung Hwa Koo)***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공공도서관 장서 대출 주제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KDC 10대 대분류 대출 데이터와 3개의 S.E.S 지표(소득, 교육비, 여가비)를 결합하고, 통제변수(장서 보유 비중, 1관당 인구, 총 장서 수)를 1단계, S.E.S 변수를 2단계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서 보유 비중은 대출 양상의 기초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물리적 환경 통제 후에도 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문학(800) 대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셋째, 소득과 여가비 등 타 사회경제지표와 대다수 KDC 주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거시적 수준의 경제적 지표가 다수의 주제 대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한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Bourdieu의 문화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석하였으며, 실무적 측면에서는 지역별 교육 투자 현황 등 거시적 S.E.S 지표를 장서관발정책 수립의 보완적 근거로 활용하고 선제적인 장서 큐레이션을 통해 지식정보 이용의 편향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how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S.E.S) influences the thematic differentiation of public library book circulation across the 25 districts of Seoul. Utilizing KDC 10 major category circulation data combined with three regional S.E.S indicators (monthly income, educational expenditure, and leisure expenditure), the study perform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1 incorporates library infrastructure and collection holding proportions as control variables, while Model 2 introduces the S.E.S variables to evaluate explanatory power incremen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pecific collection holding proportion serves as the primary driver governing user circulation patterns. Second, even after controlling for physical infrastructure, educational expenditure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roportion of literature (800) circulation, providing partial empirical support for Bourdieu's cultural capital theory. Third, other economic indicators, such as income and leisure expenditures, show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majority of KDC categories, suggesting limits in directly attributing economic metrics to diverse subject circulation trends. Consequently, this study interpreted the derived findings primarily through the framework of Bourdieu's cultural capital theory. In practical terms, the study proposes integrating S.E.S indicators, such as regional educational investment status, as complementary criteria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nd utilizing proactive collection curation to mitigate thematic biases in information use.

키워드: 공공도서관, 사회경제적 수준, 장서관출, 한국십진분류법(KDC),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Public Library, Socioeconomic Status (S.E.S), Collection Circul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학부과정(08110940am@gmail.com / ISNI 0000 0005 3092 1414)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 ISNI 0000 0004 7881 5461)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6년 8월 15일 논문심사일자 : 2026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자 : 2026년 9월 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7(3): 71-98, 202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6.37.3.071>

© Copyright © 2026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공공도서관은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보편적 지식 인프라이다 (IFLA & UNESCO, 2022).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제도적 지향점과 달리, 실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범위는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토대와 지역주민의 계층적 특성 등 거시적 사회구조에 의해 강하게 제약받기도 한다. 일례로, 조금주(2021)는 서울특별시라는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각 자치구가 보유한 재정 규모, 인구 분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수준 및 거주민 평균 소득에 뚜렷한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러한 지역 자원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 및 서비스 질의 구조적 격차를 초래한다는 점을 실증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증 분석을 수행해 왔고 특히, 최근 거시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표가 공공도서관 이용 실적을 견인하는 환경 변수임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이종욱 외, 2021; 이종욱 외, 2025; 조금주, 2021).

그러나 이들 연구는 공공도서관 이용을 방문(대출)자 수, 대출 권수와 같은 '양적 총량' 지표에 한정하여 측정해 왔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즉, 거시적 환경 요소가 도서관 이용의 외형적 규모(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실제 이용자들이 해당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제적 행태는 조망하지 못하였다. 물론 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장서의

주제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선행되어 왔으나, 대다수는 단일 도서관의 내부 실적에 의존하여 수서나 장서평가 등 경영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라는 거시적 환경과 장서 이용 간의 주제적 연관성을 탐색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정보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물리적 대출 규모의 차이를 넘어 실제 대출 장서의 '내용적 활용 격차(usage gap)', 즉 주제적 분화(또는 편중)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시적 환경 요인과 장서의 주제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거시적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공공도서관 장서 대출의 주제별 분화 양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정보 요구(information needs)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심층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한 직접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의 정보 이용 패턴을 조망하기 위해, 비관여적 방법(unobtrusive method)인 대출 트랜잭션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비록 KDC 주제별 대출 통계가 지역 주민의 정보요구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는 없으나, 특정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떠한 지식정보를 선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적인 행태 데이터라는 점에서 실증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된 정보요구를 직접 조사하는 대신, '현시된 지식정보 이용행태(KDC 주제별 대출 비중)'로 분석 범위를 국한하여 사회경제적 격차가 장서 선택에 미치는 경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을 양적 총량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무적 측면에서도 단편적인 조직 내부 실적에 의존하던 장서평가를 넘어 사회경제적 환경 지표와 연동된 지역 맞춤형 장서 개발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S.E.S)이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 소비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회학 이론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개별 이용자의 장서 이용 행태를 직접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이론들의 타당성을 실증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거시적 트랜잭션 데이터에 나타난 장서 이용의 주제적 분화 양상을 조망하기 위한 '해석의 틀(렌즈)'로서만 이 이론들을 제한적으로 차용하고자 한다.

2.1 Bourdieu의 문화자본론과 Peterson의 옴니보어 이론

Bourdieu(1984)의 고전적 문화자본 이론(Cultural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정 체화된 '아비투스(habitus, 습관)'를 형성하며, 이는 내면화된 성향이나 취향의 체계로 작용하여 문화적 재화 및 지식의 이용 패턴을 결정짓는다. 즉, 경제적 부와 교육 수준은 계층에 따라 어떤 유형의 문화나 지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구별짓

는(distinction)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기본 전제이다.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문화자본과 계급 분화를 분석한 장미혜(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본인의 학력 수준에 따라 독서 및 문화 소비 양식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을 실증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보 인프라로 간주되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는 지식 정보의 대표적인 형태인 장서의 주제(KDC)는 지역사회의 계층적 아비투스(습관/관습)에 의해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가령, 높은 경제 및 문화적 자본을 보유한 지역에서는 해당 자본을 재생산하거나 고도의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문학, 예술, 철학 등 특정 KDC 분류의 대출 비중이 배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는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과 생존에 집중된 실용적 지식(예, 기술과학, 사회과학 등)의 대출 비중이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Peterson(Peterson, 1992; Peterson & Kern, 1996)의 문화적 옴니보어 이론(Cultural Omnivore Thesis)에서는 현대 사회의 상위계층이 전통적인 의미의 고급문화만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는 '스nob(snob, 속물)'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며 다원적으로 소비하는 '옴니보어(omnivore, 잡식성)'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정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구별짓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중문화부터 고도의 순수학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포용성(tolerance)과 인지적 유연성을 통해 증명된다

는 것이다. Bourdieu의 관점이 타 계층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배타성'에 주목했다면, Peterson의 관점은 다양한 지식과 문화를 넘나드는 '개방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옴니보어 관점을 공공도서관의 장서 이용 행태에 적용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장서 이용의 주제적 범위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확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들은 순수학문뿐만 아니라, 일상적 문제해결이나 실용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장서를 고르게 이용하는 '옴니보어(잡식성)' 양상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은 당면한 과제해결에 집중하느라 제한된 주제 영역에만 머무르는 '유니보어(univore, 편식성)'적 성향을 띌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DC 10대 대분류별 대출 비중을 종속변수로 삼아, 거시적 사회경제적 격차가 지역사회 지식정보 이용에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경향성을 이 이론들의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2 Chatman의 소세계 이론과 정보빈곤

공공도서관 장서 이용의 주제적 편중 또는 확장 현상을 정보행태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Chatman의 소세계 이론(Theory of Small World)을 검토한다. Chatman(1999)의 소세계 이론은 특정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인 집단이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small world)'를 구축하며, 그 경계 안에서 일상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만을 수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배제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특히 Chatman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겪는 '정보 빈곤

(information poverty)'의 핵심 원인을 물리적 정보 접근성의 부재라기보다, 당장의 생존이나 일상적 한계에 매몰되어 거시적이거나 추상적인 정보탐색을 스스로 단념하는 그들의 세계관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Chatman, 1996; 1999).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일상적 과제와 '소세계'의 경계를 규정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은 소세계 내의 당면 과제 해결에 직결되는 정보요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공공도서관 장서 선택에 있어 특정 실용적 KDC 주제에 대한 대출 집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은 정보세계의 경계가 확장되어 있어, 생존과 무관한 다양한 주제 분야로 장서 선택과 이용이 다각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hatman의 소세계 및 정보빈곤 이론을 보조적인 해석의 준거로 삼아, 자치구 단위의 자본 수준 격차에 따른 대출 비중의 양상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3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S.E.S)의 개념적 확장과 다차원적 측정 지표

사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Status, 이하 S.E.S)은 한 개인이 사회 내에 위치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반영한 종합적인 개념이다(Baker, 2014).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과 지표들을 정리해 보면 "직업, 교육수준, 수입, 빈곤 수준, 부의 수준, 가족구조(가족 수), 사회적 통합 수준, 주택 소유 여부, 물질적 생활 조건, 가계소비단위당 수입,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만족, 밀집도, 공적 지원수준, 전반적인 사

회경제적 수준 평가 등 15개 분야로 압축된다(채정민, 2014, 228).” 이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S.E.S는 소득, 직업, 교육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해 왔으며 이 세 가지가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박정미 외, 2023). 즉, 고전적 개념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풍부한 물질적 자원(소득)과 사회적 위신(직업 및 교육)을 확보한 상태를 의미해 왔다(김주희 외, 2015; Townsend, 1979).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개념과 지표(소득, 직업, 교육)를 행정구역 단위 혹은 거시적인 지역 사회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직업(지위)은 개개인의 단위 분석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지역 주민 전체의 직업을 취합하여 거시적 특성을 규정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직업 지위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 지표와 중복되는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박정미 외, 2023; 황희봉, 주은선, 2022). 이에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인 지표의 산술적 합산을 넘어, 해당 지역이 보유한 경제적 기반을 대변하는 대체 지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혹은 지위)을 배제하고, 지역 단위의 자산과 소비 역량을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를 구성하려 한다. 다양한 측정 방식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자산 요인(재정자립도, 공시지가, 평균소득월액)’과 ‘문화·교육 소비 요인(교육비, 여가비)’이라는 다섯 가지 지표를 S.E.S 측정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 근거로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3)의 물질적 생활수준 프레임워크

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은 ‘소득(income)’, 축적된 ‘자산(wealth)’, 그리고 실제적인 ‘소비(consumption)’라는 세 가지 축을 모두 종합할 때만 온전히 파악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되는 소득 지표는 변동성이 심하고 이 단일 지표만으로는 잠재적 소비 여력을 온전히 입증하기 어렵다. 반면, 축적된 부동산 가치를 뜻하는 ‘공시지가’와 지자체의 공공 인프라 투자 능력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장기적인 자산(물적 기반)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이 기본 생존의 문제를 넘어 문화와 지식 탐구(예, 공공도서관)에 투자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전적인 지표인 기본적인 소득 지표(평균소득월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OECD 프레임워크에 맞춰 자산 지표(공시지가, 재정자립도)와 소비 역량 지표(교육비, 여가비)를 포괄하여 S.E.S 차이를 측정하려 한다. 둘째, 경제적 지표와 더불어 교육비와 여가비를 사회문화적 핵심 변수로 포함하려는 이유는 지식정보 이용의 계층화를 설명하는 Bourdieu와 Peterson의 이론을 해석의 틀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Bourdieu(1984)에 따르면 경제적 자본은 교육과 문화비 지출을 통해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며, 이는 곧 집단의 내면화된 아비투스(습관)를 형성한다. 즉, 지역 단위의 교육비와 여가비 지출 규모는 해당 지역이 지식과 문화를 이용하는 실제 ‘문화 소비 역량’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Peterson(1992)의 옴니보어 이론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지식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잉여 자원의 투입(여가비 및 교육비)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을 겪으며 서구사회와 같이 역사적으로 축

적된 귀족문화나 고급전통이 부재하여 상류층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지닌다(이상수, 이명진, 2014; 최선헌, 2006). 이러한 한국적 맥락에서는 특정 문화활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보다는 문화 소비의 '폭과 양(여가비 지출 규모)'을 살피는 것이 그 지역의 S.E.S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김은미, 서세륜, 2011).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의 의미를 소득 통계 수치와 더불어 지역의 자산(재정자립도, 공시지가)을 기반으로 고도의 지식·문화 소비 역량(교육비, 여가비)을 발휘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다섯 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실제 장서 이용에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장서대출 양상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초점과 독립 혹은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뚜렷한 흐름으로 대별됨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흐름은 도서관의 총체적 이용 규모(방문자 수, 대출 권수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탐색한 연구들이며, 두 번째 흐름은 실제 도서관 대출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이용된 장서의 주제적 특성과 맥락을 규명한 연구들이다.

먼저, 공공도서관 이용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첫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변수의 층위에 따라 다시 '개인적 요인', '지역 사회적 요인', '도서관 경영적 요인'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이용자의 내적 특성이 도서관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차원에서 규명하였다. 권나현(2018), 정현천(2021)은 이용자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관이 공공도서관 서비스 및 문화프로그램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혜윤과 이지연(2014), 최순애(2008)는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도서 선택 및 이용 패턴의 차이를 유발함을 확인하였다. 연지은과 김기영(2018)은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태도 및 주관적 규범이 도서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적 요인에 주목한 거시적 연구들은 인구구조, 경제 지표, 지리적 입지 등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구본진과 장덕현(2021), 원종준과 안건혁(2010)은 인구밀도, 교통 접근성, 지리적 입지 효율성이 도서관 접근성 및 이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송민선과 심효정(2025), 이종욱 외(2025), 전계형과 권선영(2018)의 연구에서는 지역의 총 인구수, 고령화율, 재정자립도, 실업률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가 대출자 수 및 자료실 이용 지표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셋째, 도서관 경영적 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들로, 도서관의 투입 자원과 산출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김선애(2016), 서혜린(2019), 이경진(2020)의 연구는 예산, 운영 인력, 장서의 양, 연면적 등의 핵심 투입 요소가 방문자 수 및 대출 실적 증가로 이어짐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조금주(2021)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예산 및 장서 수 등의 경영 지표와 지역 거주민의 학력·소득별 대출 실

적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반면, 박종덕(2019)의 연구에서는 예산 및 장서 수와 이용자 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런 총량적(양적) 요인 분석에서 벗어나 실제 공공도서관 대출 데이터 자체를 중심으로 ‘주제별 이용 패턴’을 분석한 두 번째 연구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서 평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대출 편중 현상을 실증한 연구들이다. 오지은과 정동열(2015), 유경종과 박일종(2008)은 장서회전을 및 이용계수(Use Factor, UF)를 도입하여, 소수 핵심 장서에 대출이 쏠리는 80/20 현상을 입증하며 장서 소장량에서 실제 이용량 기반의 평가로 전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완중(2014), 윤희윤과 김일영(2011), 이제호와 권선영(2017)은 문학, 소설, 아동문학상 수상작 등 특정 주제 분야에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양상을 데이터로 규명하였다. 둘째, 이용자 집단 혹은 거시적 지역 환경에 따라 대출 주제의 분포가 달라짐을 확인한 연구들이다. 허선과 정연경(2014)은 지역의 교육 및 인구밀집도 등 사회경제적 환경 차이가 이용자의 대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김선애와 서혜란(2009)은 도서관의 규모와 위치한 지역에 따라 특정 주제(문학, 사회과학 등)의 장서 및 대출 분포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장서대출의 주제가 이용자 개인의 속성을 넘어 지역적 특성과 연동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셋째, KDC 주제 분류 차원을 넘어 장서 대출의 맥락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확장하고 주제 간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구들이다. 구체적으로 김완중(2014)과 심지영(2021)은 동시대출 군집분석을 활용하거나 인터넷 서점의 장르, 관심사, 저자 등의 세부 속성을 결합하여, 지역 환경 통계(유치원, 상업지구 등)가 도서관 이용자의 다차원적이고 세분화된 지식 요구 패턴으로 반영됨을 밝혀냈다.

종합하면, 기존 선행연구들은 공공도서관 장서 대출량 즉 이용량이 거시적 환경에 의해 어떻게 제약되는지를 실증하였고(첫 번째 흐름), 대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서관 장서의 복합적인 이용현상과 이용자 요구를 파악함으로써(두 번째 흐름) 관련 분야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흐름의 연구들은 서로 교차하지 못한 채 각각의 한계를 지닌다. 첫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도서관 이용을 대출 권수라는 단일한 양적 지표에 집중한 나머지, 도서관 내 장서 이용을 주제적 구분이 없는 동질적 행위로 간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두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대출 장서의 주제적 특성을 분석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수서나 폐기를 위한 내부 경영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거나 특정 주제의 편중 현상을 기술하는데 그쳤다. 즉, 기존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실제적인 장서 대출 주제 간의 연관성을 통합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도서관의 장서 이용 실적(양)이나 내부 경영 지표로만 한정할 경우, 동일한 도서관 인프라 내에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식 정보 이용의 주제적 분화 양상은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을 둘러싼 정보 불평등 논의가 물리적 공간에 대한 단순한 접근성이나 대출 규모(양)의 차이를 넘어 ‘내용적(주제적) 활용 격차(usage gap)’ 차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두 가지 흐름이 지닌 간극을 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연구 흐름의 방법론적 토대인 지역사회 S.E.S(독립변수)를 차용하되, 이를 두 번째 연구 흐름의 핵심인 주제별 장서 대출 분포(종속변수)와 결합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양적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자본 및 문화 수준에 따른 '주제별 정보 이용의 실질적 문화양상'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공간적 범위 설정 근거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장서 대출에 있어 주제적 이용 패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S.E.S)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로 한정하였다. 서울시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관할 25개 자치구 전체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표본 추출에 따른 통계적 오차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이며, 표본추출에 의한 단순 표본이 아니라 서울시라는 한정된 공간적 '모집단 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일반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서울시 자치구 간 관계를 기술하고 탐색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다만, 관측치가 25개에 불과하여 회귀계수의 통계적 검정력과 추정 안정성에 있어 내재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지양하고, 분석 결과의 해석 범위를 서울시 자치구 수준으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이들 자치구 간의 소득 수준과 문화 소비역량의 격차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간적 특성을 지니므로(김현석, 한성민, 2024), 사회경제적 스펙트럼이 넓은 서울지역이 독립변수(S.E.S 지표)의 영향력을 탐색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도서관 인프라 접근성 및 외생변수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연구범위를 전국으로 확장할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물리적인 도서관 수 격차, 교통 접근성의 한계, 지자체별 문화 정책의 차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들이 대출 결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울시는 단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어 문화정책의 기초를 공유하고 있고, 25개 자치구 전역에 걸쳐 공공도서관 인프라와 대중교통망도 비교적 균질하게 구축되어 있는 편이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한 도서관 비이용 효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지식정보 이용(주제별 대출)의 차이를 관찰하는 데 용이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지표

3.2.1 독립변수: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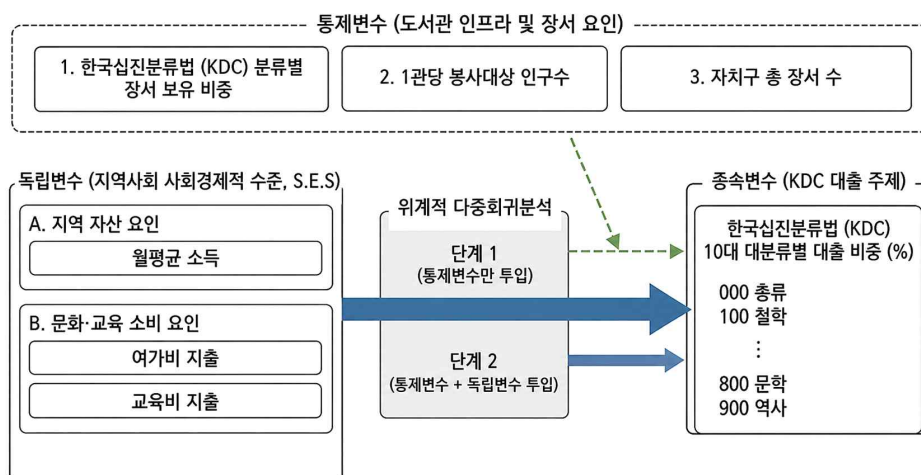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앞선 2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객관적 자산과 소비 역량을 포괄하는 다섯 가지 지표(재정자립도, 공시지가, 평균소득월액, 교육비, 여가비)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사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진단 결과, 자산 요인에 해당하는 재정자립도와 공시지가 변수에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을 초과하여 회귀계수 추정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었다. 이에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해당 두 개의 자산 변수(재정자립도, 공시지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소득 요인(평균소득월액)'과 '문화·교육 소비 요인(교육비, 여가비 지출액)'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S.E.S 변수로 확정하였다(〈그림 1〉 참고).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차원적 지표를 통계적으로 모형화할 때, 복수의 변수를 주성분분석(PCA)이나 합산을 통해 하나의 '단일 종합 지표'로 묶는 방식과 개별 변수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왔다. 단일 종합 지표

방식은 모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변수가 지니는 고유한 설명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Wooldridge, 2026).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인 지역 소득과 소비 역량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장서 대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일 지표로 압축하지 않고 다중회귀모형에 독립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최종 선정된 세 가지 지표(소득, 교육비, 여가비)는 원(W) 단위의 금전적 지출 데이터로, 통상적으로 우측으로 꼬리가 긴 비대칭 분포, 우측 편향을 띄는 특성이 있다. 이를 연속형 변수 그대로 투입할 경우 정규성(normality) 가정이 위배되며, 변수 간 척도차이로 인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분포에 근사시키기 위해, 각 독립변수에 자연로그(Natural Log, LN) 변환을 적용하였다(Wooldridge, 2026). 아울러, 위계적 회귀분석에는 각 변수를 자연로그(LN)



〈그림 1〉 최종 분석 모형

변환한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분석 결과 도출 후 자치구 간 상대적 위계를 비교·해석하기 위해 전체 자치구 기준의 5분위수(quintile) 범주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3.2.2 종속변수: KDC 10대 분류별 대출 비중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분석 대상 25개 자치구 내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전체 도서 중 'KDC 10대 대분류별 대출 권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는 이용자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환경 내에서 어떠한 주제의 지식정보를 선택했는지 비관여적 트랜잭션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3.2.3 통제변수: 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 요인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S.E.S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 대출 실적에 기저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첫째, 'KDC 10대 분류별 장서 보유 비중(%)'을 통제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수서 정책에 따라 특정 주제 장서의 과다 소장이 해당 주제의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가령, 특정 자치구의 공공도서관이 문학(800) 분야의 장서를 타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물리적 노출 빈도의 증가가 대출 비중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종속변수(특정 주제 대출 비중)의 추정치가 도서관의 장서 구성 비율에 의해 과대 추정되는 것을 완화하고자 해당 변수를 통제하였다.

둘째, 자치구별 도서관 인프라의 물리적 규모와 수용 능력 차이에 따른 외부 효과를 소거

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와 '자치구 총 장서 수'를 추가적인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가령, 자치구 총 장서 수가 제한적이거나 1관당 감당해야 할 봉사대상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과밀 지역의 경우, 인프라의 제약으로 인해 이용자의 정보 탐색이 위축되어 이용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특정 인기 대중서 위주로 장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인프라를 잘 갖춘 자치구는 장서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대출 주제가 폭넓게 분산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수용 능력과 물리적 규모 차이가 대출 패턴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였다.

3.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의 시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의 기준 연도를 최근 '2025년'으로 통일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원시 데이터 수집 출처와 데이터 전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수준(S.E.S) 데이터이다. 소득 요인은 국민연금공단의 '자격 시구신고 평균소득월액(2025년 1월 31일 기준)' 데이터를 자치구 단위로 추출하였다(국민연금공단, 2025). 문화·교육 소비 요인인 여가비와 교육비는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2026년 공개) 원시 데이터 중 '2025년 1분기'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26), 행정동 및 상권 단위로 세분화되어 집계된 수치를 종속변수의 공간적 기준에 맞추어 자치구 단위의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KDC 10대 대분류별 대출 비중은 2025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결과표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5개 자치구 각각에 대하여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의 특정 주제별 인쇄자료(성인) 대출 수 합계'를 '해당 자치구의 전체 성인 인쇄자료 대출 수 합계'로 나눈 백분율(%)을 종속변수로 적용하였다. 여기서 대출 데이터를 '성인'으로 한정한 이유는 S.E.S 지표(소득 및 지출)를 실질적으로 창출하고 소비하는 핵심 경제 주체가 성인이므로, 이들의 장서 이용의 주제적 패턴을 측정하기 위해 제한하였다.

셋째, 통제변수인 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 요인 역시 2025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처리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6).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자치구별 총인구수를 관내 공공도서관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자치구 총 장서 수'는 자치구별 1관당 장서 수에 관내 공공도서관 수를 곱하여 지역 전체의 물리적 인프라 규모로 환산하였다. 아울러 '장서 보유 비중'은 종속변수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자치구별 모든 도서관의 특정 주제별 장서 수의 합계를 자치구 전체 도서관의 총 장서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에 투입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전체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데이터의 수준을 파

악하였다. 분석 데이터가 다중회귀모형의 기본 가정인 정규성(normality)을 위배하지 않는지 점검하였고, 추정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극단적 이상치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자치구별 소득, 여가비 및 교육비는 지표의 특성상 변수 간 상호 상관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중공선성이 내재할 경우 회귀계수의 분산이 팽창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상관관계수(r)를 1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어 회귀분석 수행 시 분산팽창요인(VIF) 수치를 산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VIF 지수 10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 내 각 변수가 독립적인 설명력을 지닐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의 거시적 S.E.S 요인이 KDC 10대 대분류별 대출 비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공공도서관의 대출 패턴은 지역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의 인프라 규모와 장서 구성 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금주, 2021). 따라서 종속변수에 미치는 기저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1단계 모형(Model 1)에서는 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 요인(해당 KDC 장서 보유 비중,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자치구 총 장서 수)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어 2단계 모형(Model 2)에서는 핵심 독립변수인 S.E.S 요인(평균소득월액, 교육비, 여가비)을 추가 투입하였다. 앞서 3.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지표는 데이터의 비대칭

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로그 변환(LN)을 거친 후 연속형 변수 형태로 다중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모형의 적합도 통계량(F)과 설명력(R^2)을 확인하고, 1단계 대비 2단계 모형의 순수 설명력 증가량(ΔR^2) 및 변화량의 통계적 유의성(ΔF)을 중심 지표로 삼아 검증하였다. 이는 단순 상관분석으로는 분리해 낼 수 없는 도서관 인프라의 당연한 물리적 공급 효과를 우선적으로 소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특정 주제 대출 비중에 지니는 순수한 추가 설명력만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회귀분석 결과 도출 이후, 지역 간 상대적 위계와 분포 특성을 비교·해석하기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각 지표를 5분위수(quintile)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개별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β)와 t 통계량, 유의확률(p)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S.E.S 요인이 특정 KDC

주제 대출 비중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성과 크기를 도출하였다.

4. 결 과

4.1 변수들의 특성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독립변수(S.E.S 요인), 통제변수(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요인), 그리고 종속변수(KDC 10대 대분류별 대출 비중)의 데이터 분포와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참고).

우선, S.E.S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자연로그(LN)로 변환된 평균소득월액은 평균 14,229($SD=0.070$)로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자치구 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도출되었다. 서울

〈표 1〉 주요 연구 변수(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기술통계

변수	N	Min	Max	M	SD
LN_평균소득월액 (원)	25	14.12	14.40	14.229	.070
LN_교육지출총금액 (원)	25	21.12	24.33	22.434	.833
LN_여가지출총금액 (원)	25	21.78	28.49	24.093	2.200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명)	25	13,089	119,401	47,083	19,887
자치구 총 장서 수 (권)	25	339,748	1,171,313	665,312	225,352
종류, 000 보유 비중(%)	25	3.44%	4.83%	4.017%	.425%
철학, 100 보유 비중(%)	25	4.79%	5.96%	5.406%	.317%
종교, 200 보유 비중(%)	25	1.46%	6.20%	2.312%	.889%
사회과학, 300 보유 비중(%)	25	13.85%	25.93%	16.962%	2.301%
순수과학, 400 보유 비중(%)	25	4.45%	7.72%	6.647%	.800%
기술과학, 500 보유 비중(%)	25	6.76%	12.28%	7.951%	1.029%
예술, 600 보유 비중(%)	25	3.59%	6.98%	4.641%	.660%
언어, 700 보유 비중(%)	25	1.87%	4.59%	2.870%	.553%
문학, 800 보유 비중(%)	25	31.80%	47.05%	41.324%	3.52%
역사, 900 보유 비중(%)	25	7.03%	10.90%	7.873%	.815%

시 자치구 간 경제적 격차가 분명 존재함에도 소득 변수의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난 데에는 데이터의 내재적 한계와 통계 모형 구축과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평균소득월액은 '근로소득'에 기반한 데이터이다. 대도시 내 부(wealth)의 양극화는 통상 근로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본(자산) 소득'의 격차에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연구 초기에는 지역 자산 지표인 공시지가를 모형에 포함하였으나, 앞선 3.2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VIF > 10) 문제로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단일 근로소득 지표만으로는 자치구 간 실질적인 부의 편차를 온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따르며, 이로 인해 통계적인 평균화 현상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거시적인 소득(근로소득) 지표에서는 지역 간 변별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가비(평균 24.093, SD=2.200) 지출에는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S.E.S 변수를 소득 단일 지표에 국한하지 않고 소비 지출 지표로 다각화하

여 접근한 것은, 특정 지표가 지닐 수 있는 측정상의 한계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 간극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보완적 장치로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KDC 대분류별 대출 비중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표 2〉 참고),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주제별 지식정보 이용이 특정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25개 자치구의 대출 비중 평균을 산출한 결과 문학(800) 분야가 49.01%로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회과학(300, 13.93%)과 합산할 경우 전체 대출 실적의 약 63%가 단 두 개의 주제 분야에 밀집되어 있었다. 반면, 그 외 순수과학(400, M=7.08%, SD=1.17%), 역사(900, M=6.82%, SD=0.69%), 기술과학(500, M=5.78%, SD=0.57%), 철학(100, M=5.16%, SD=0.80%), 언어(700, M=4.19%, SD=1.20%), 총류(000, M=3.25%, SD=0.49%), 예술(600, M=3.07%, SD=0.82%)은 모두 한 자릿수의 대출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종교(200, M=1.69%, SD=0.46%) 분야가 가장 낮은 수요를 보였다.

〈표 2〉 KDC 대분류별 대출 비중(종속변수)의 기술통계

KDC	주제	Min (%)	Max (%)	M (%)	SD (%)
000	총류	2.33	4.29	3.25	0.49
100	철학	3.77	7.71	5.16	0.80
200	종교	1.03	3.38	1.69	0.46
300	사회과학	11.57	18.25	13.93	1.60
400	순수과학	4.49	9.32	7.08	1.17
500	기술과학	4.75	7.33	5.78	0.57
600	예술	2.37	5.59	3.07	0.82
700	언어	2.66	7.08	4.19	1.20
800	문학	41.73	54.84	49.01	3.43
900	역사	5.95	8.93	6.82	0.69

4.2 다중회귀분석의 사전 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모형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가정인 정규성(normality),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첫째, 정규성 검토는 왜도 절댓값 2.0 미만, 첨도 절댓값 7.0 미만의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검토 결과, S.E.S 독립변수 3종(왜도 0.389~0.937, 첨도 -0.463~0.837)을 비롯한 상당수의 통제 및 종속변수가 정규 분포 가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예외적으로 종교(200), 사회과학(300), 기술과학(500), 역사(900)에 해당하는 종속변수에서 일정 수준의 우측 편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중회귀분석의 특성상 이 정도 수준의 정규성 편차는 모형의 설명력을 치명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Wooldridge, 2026). 더욱이, 이러한 비대칭적 분포는 특정 지역사회의 정보요구가 특정 주제 분야로 편중되어 나타나는 공공도서관 장서 이용의 실제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지니는 현실 데이터로서

〈표 3〉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증

변수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판단
LN_평균소득월액	.909	.837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LN_교육지출총금액	.389	-.210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LN_여가지출총금액	.937	-.463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1.739	6.877	기준 충족 (Kurt < 7)
자치구 총 장서 수	.645	-.066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총류, 000	.638	-.611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철학, 100	-.188	-.925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종교, 200	3.731	16.239	우측 편향 관찰
사회과학, 300	2.653	9.543	우측 편향 관찰
순수과학, 400	-1.609	2.959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기술과학, 500	3.260	13.507	우측 편향 관찰
예술, 600	1.803	5.792	기준 충족 (Kurt < 7)
언어, 700	1.048	3.001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문학, 800	-1.022	1.527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역사, 900	2.369	7.647	우측 편향 관찰
총류, 000	.310	-.449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철학, 100	1.079	3.004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종교, 200	2.053	6.901	기준 충족 (Kurt < 7)
사회과학, 300	.716	.710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순수과학, 400	-.440	-.049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기술과학, 500	.750	.775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예술, 600	2.017	3.955	기준 충족 (Kurt < 7)
언어, 700	.628	-.076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문학, 800	-.032	-.543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역사, 900	1.641	3.473	기준 충족 (Skew < 2, Kurt < 7)

의 속성을 보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변환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한 결과, 10개 KDC 전 주제 영역에서 분산팽창요인(VIF) 수치가 엄격한 통제 기준인 4.0 미만($VIF < 4.0$)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분석에 활용된 세 개의 S.E.S 독립변수가 모형 내에서 상호호간섭이나 왜곡 없이 종속변수에 대한 고유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추정된 다중회귀모형의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데이터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지역 간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모란 지수(Moran's I)와 같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검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리적 인접성 자체의 효과를 추정하는 공간계량분석이 아닌, 각 자치구를 상호 독립적인 횡단면 데이터로 전제하여 S.E.S 지표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표준선형회귀(OLS) 분석을 적용하였다(Wooldridge, 2026). 이에 따라 OLS 모형의 기본 가정인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Durbin-Watson 수치는 1.850에서 2.775 사이에 분포하여 기준값인 2.0에 대체로 근접하였다. 횡단면 데이터에 적용된 해당 수치만으로 공간적 인접성에 따른 오차를 전면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나, 투입된 분석 데이터 배열상에서 잔차 간의 자기상관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며, 도출된 회귀계수 추정치 또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4〉 참고).

4.3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도서관 인프라의 기저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효과만을 규명하고자 2단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Model 1)에서는 도서관 인프라 및 장서 요인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물리적 공급의 기초적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2단계(Model 2)에서는 핵심 경제적 지표(평균소득월액, 교육비, 여가비)를 추가하여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4〉 참고).

4.3.1 통제변수(도서관 인프라)의 주도적 정(+)의 상관성 (Model 1)

1단계 분석 결과, 통제변수인 KDC 분류별 장서 보유 비중은 총류(000), 철학(100), 기술과학(500), 언어(700) 등 4개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제 분야에서 대출 비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 주제 장서의 규모가 클수록 해당 주제의 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준화 회귀계수(β)에 따르면, 종교(200, $\beta=1.011$, $p<.001$) 분야의 상관성이 가장 높았으며, 역사(900, $\beta=0.843$, $p<.001$), 예술(600, $\beta=0.721$, $p<.01$), 사회과학(300, $\beta=0.652$, $p<.01$), 문학(800, $\beta=0.649$, $p<.01$), 순수과학(400, $\beta=0.639$, $p<.05$) 순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기술과학(500, $\beta=0.554$, $p>.10$), 철학(100, $\beta=0.469$, $p>.10$), 총류(000, $\beta=0.369$, $p>.10$)와 언어(700) 분야는 정(+)의 방향성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p>.10$)은 확보하지 못하였다(〈표 4〉 참고). 다만, 종교(200) 분야의 경우 통제변수인 장서 보유 비중의 표준화

〈표 4〉 KDC 대분류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투입 변수명	000 (총류)	100 (철학)	200 (종교)	300 (사회과학)	400 (순수과학)	500 (기술과학)	600 (예술)	700 (언어)	800 (문학)	900 (역사)
통계변수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326	.089	-.338	.635	-.029	.184	-.302	-.227	-.185	-.067
	자치구 총 장서 수	.123	.451	-.249	.134	.217	.377	-.120	.036	-.259	-.166
	KDC 분류별 장서 보유 비중	.369	.469	1.011	.652	.639	.554	.721	.232	.649	.843
독립변수	LN_평균소득월액	-.011	-.448	.063	.252	.031	.204	.091	-.023	-.219	.313
	LN_교육비 지출	-.563	-.205	.038	-.406	-.236	-.367	-.037	-.138	.530	-.060
	LN_여가비 지출	.409	.042	-.108	.082	.300	-.394	-.094	.071	-.061	.181
모형 지표	Model 1 R ²	.238	.176	.839	.465	.367	.132	.478	.063	.493	.593
	Model 1 F (p)	2.189 (.119)	1.498 (.244)	36.486 (.000)	6.079 (.004)	4.051 (.020)	1.066 (.385)	6.415 (.003)	.468 (.707)	6.815 (.002)	10.198 (.000)
	Model 2 R ²	.430	.388	.845	.560	.427	.342	.485	.073	.648	.701
	Model 2 F (p)	2.263 (.084)	1.902 (.136)	16.362 (.000)	3.824 (.012)	2.234 (.087)	1.556 (.217)	2.831 (.040)	.238 (.958)	5.533 (.002)	7.019 (.001)
	Delta R ² (설명력 증가량)	.191	.212	.006	.096	.060	.209	.007	.011	.155	.108
	F 변화량 (p)	2.015 (.148)	2.075 (.139)	0.234 (.872)	1.304 (.304)	0.63 (.605)	1.908 (.165)	0.085 (.967)	0.069 (.976)	2.647 (.080)	2.156 (.129)
	Durbin-Watson	2.052	1.850	2.352	2.412	1.859	2.208	2.417	1.884	2.775	2.530
	VIF 범위	< 3.0	< 4.0	< 4.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회귀계수(β)가 1을 초과하는 특이치(1.011)를 보였다. 이는 해당 분야의 장서 규모와 대출량이 타 분야에 비해 극히 적고 특정 자치구에 편향된 우측 꼬리 분포를 보임에 따라, 통계적 억제효과 또는 과대 추정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Wooldridge, 2026).

4.3.2 S.E.S 변수 추가에 따른 설명력 변화 및 개별 영향 (Model 2)

도서관 인프라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S.E.S 요인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Model 1에 S.E.S 독립변수를 포함한 Model 2의 설명력 증가량(ΔR^2)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장서의 주제 분야에 따라 S.E.S 변수에 반응하는 양상이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표 5〉 참고).

첫째, S.E.S 변수 투입에 따라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영역은 문학(800) 분야이다. 오직 문학분야만이 설명력 증가분이 완화된 유의수준(10%)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Delta R^2=0.155$, $\Delta F=2.647$, $p=0.080$). 개별 변수를 살펴보면 특히 교육비 지출($\beta=0.530$)

이 모집단의 실질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투자 및 지출이 클수록 문학분야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을 나타내며, 해당 분야의 장서 이용이 지역의 교육 자본 및 소비역량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설명력 증가폭이 관찰된 철학(100), 기술과학(500), 종류(000), 역사(900)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Model 2 투입에 따라 $\Delta R^2=0.108\sim0.212$ 수준의 증가를 보였으나, ΔF 검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충족되지 못했다. 따라서, 유의수준($p>.10$)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 영역의 수치적 변동을 확정적 인과관계나 실증적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한적 참고치로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시적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와 투입에 따른 설명력 변화에도 극히 미미한 분야는 종교(200, $\Delta R^2=0.006$), 예술(600, $\Delta R^2=0.007$), 언어(700, $\Delta R^2=0.011$), 순수과학(400, $\Delta R^2=0.060$)이었다. 특히 종교, 예술, 언어 영

〈표 5〉 S.E.S 변수 투입에 따른 설명력 변화

KDC	Model 1 R^2	Model 2 R^2	ΔR^2	ΔF (p)	통계적 유의성 판정
종류, 000	.238	.430	.191	2.015 (.148)	비유의 ($p > .10$)
철학, 100	.176	.388	.212	2.075 (.139)	비유의 ($p > .10$)
종교, 200	.839	.845	.006	0.234 (.872)	비유의 ($p > .10$)
사회과학, 300	.465	.560	.096	1.304 (.304)	비유의 ($p > .10$)
순수과학, 400	.367	.427	.060	0.630 (.605)	비유의 ($p > .10$)
기술과학, 500	.132	.342	.209	1.908 (.165)	비유의 ($p > .10$)
예술, 600	.478	.485	.007	0.085 (.967)	비유의 ($p > .10$)
언어, 700	.063	.073	.011	0.069 (.976)	비유의 ($p > .10$)
문학, 800	.493	.648	.155	2.647 (.080)	유의 ($p < .10$)
역사, 900	.593	.701	.108	2.156 (.129)	비유의 ($p > .10$)

역은 설명력 증가 폭이 1.1%p 이하에 그쳤다. 이는 해당 주제의 장서 이용은 사회경제적 토대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예, 개인적 취향 또는 신념)에 의해 유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4.3.3 최종 회귀모형의 적합성 평가

2단계 회귀모형(Model 2) 전체의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F 검증)을 수행하여 모형 적합성을 평가하였다(<표 6> 참고). 분석 결과, 종교(200, $F=16.362$, $p<.001$), 역사(900, $F=7.019$, $p=.001$), 문학(800, $F=5.533$, $p=.002$), 사회과학(300, $F=3.824$, $p=.012$), 예술(600, $F=2.831$, $p=.040$)의 5개 분야는 5% 유의수준($p<.05$) 내에서 통계적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들 모형 전체의 유의성은 2단계 S.E.S 변수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 주로 1단계에서 투입된 도서관 인프라(장서 보유 비중)의 강력한 기저 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S.E.S 변수 투입에 따른 추가 설명력(ΔR^2)은 문학(800) 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 제한적이었으므로, Model 2의 전체 유의성은 이러한 인

프라의 통제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류(000, $F=2.263$, $p=.084$)와 순수과학(400, $F=2.234$, $p=.087$) 분야는 10% 유의수준 하에서 제한적인 수준의 모형 적합성을 나타냈다. 반면, 철학(100, $p=.136$), 기술과학(500, $p=.217$), 언어(700, $p=.958$) 분야는 모형 전체의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당 세 분야의 장서 이용이 자치구 단위의 거시적 경제·교육 환경이나 도서관 인프라의 영향력보다는, 이용자 개인의 내적 동기 및 미시적 요인(예, 심리, 자기개발, 취업, 어학 등)에 의해 주로 유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4.4 분석 결과의 논의와 시사점

본 절에서는 앞서 2장에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비 지출과 문학(800) 분야 대출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Bourdieu의 고전적 문화자본 이론을 통해 해석할 수 있다. 2단계 모형에서

<표 6> KDC 대분류별 전체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KDC 대분류	최종 F 통계량	유의확률 (P)	모형 적합성	적합성 판정 세부 내용
000 총류	2.263	.084	△	완화된 유의 ($p < .10$)
100 철학	1.902	.136	×	모형 비유의 ($p > .10$)
200 종교	16.362	.000	○	모형 유의 ($p < .05$)
300 사회과학	3.824	.012	○	모형 유의 ($p < .05$)
400 순수과학	2.234	.087	△	완화된 유의 ($p < .10$)
500 기술과학	1.556	.217	×	모형 비유의 ($p > .10$)
600 예술	2.831	.040	○	모형 유의 ($p < .05$)
700 언어	0.238	.958	×	모형 비유의 ($p > .10$)
800 문학	5.533	.002	○	모형 유의 ($p < .05$)
900 역사	7.019	.001	○	모형 유의 ($p < .05$)

S.E.S 변수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난 분야는 문학이 유일하였으며, 개별 변수 중 교육비 지출이 이를 건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공공도서관 문학 장서 대출의 상당 비중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림책 및 창작 문학에 집중되는 현실(국립중앙도서관, 2026a; 2026b)을 고려할 때, 이는 Bourdieu가 지정한 ‘체화된 문화자본(아비투스)’의 형성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교육적 투자 역량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관의 문학 장서를 자녀의 기초 문해력 및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학 분야에 집중된 장서 이용 행태가 개인의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지역사회의 교육 자본의 축적 및 소비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안정적인 장서 제공(인프라)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충할 수 있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단계 모형 분석 결과, 각 주제별 장서 보유 비중은 대출 비중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투입된 도서관 인프라 요인의 기초 설명력이 압도적으로 커서 상대적으로 2단계에 투입된 외부 S.E.S 변수의 추가적 설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는 역으로 긍정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공공도서관이 양질의 장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면, S.E.S 격차에 기인한 정보 빈곤 현상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의 평등한 분배와 정보 격차 해소라는 공공도서관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실증적 데이

터로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소득 및 여가비를 압도하는 ‘교육비’의 독보적인 설명력은 한국(서울) 사회 특유의 교육 경쟁 구도와 지식정보 이용 행태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소득이나 여가비는 특정 주제 대출과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오직 교육비 지출만이 문학 분야의 대출 비중을 유의하게 건인하였다. 이는 사회교육비 지출이 가계 경제를 주도하고 학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투자가 집중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김경근, 2005)과 맞닿아 있다. 즉, 서울이라는 공간적 범위 내에서 공공도서관 장서 이용의 주제적 분화는 단순한 개인의 여가적 선호를 넘어, 학구열 및 교육적 투자라는 거시적 환경 요인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조망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끝으로, 문학(800)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 분야의 대출 양상은 거시적 S.E.S 지표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문학 이외의 모든 주제 분야에서는 거시적 S.E.S 지표와 대출 비중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거시적 데이터의 경향성만으로, 취약계층의 미시적 정보 이용 동기를 다룬 Chatman의 정보 빈곤 이론이나 여가 자본의 확장을 설명하는 Peterson의 문화적 잡식성 이론을 직접 결부시켜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S.E.S)

이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S.E.S 지표 중 오직 '교육비 지출'만이 '문학(800)' 분야 장서 대출 비중을 유의미하게 견인하는 핵심 변수로 도출되었다. 소득이나 여가비를 압도하는 교육비의 독보적인 설명력은 한국(서울) 사회 특유의 교육 경쟁이 공공도서관 이용 행태로 발현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 이는 교육적 투자 여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공도서관의 문학 장서를 자녀의 문화자본 축적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Bourdieu의 고전적 문화자본 이론이 지역 단위의 도서관 이용 양상에서도 부분적으로 투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장서 보유 비중은 대출을 견인하는 가장 주도적인 인프라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이용 범위가 도서관이 제공하는 물리적 장서 규모에 크게 좌우됨을 의미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사회경제적 기반이 다소 취약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공공도서관이 양질의 장서를 전략적으로 확충한다면,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 접근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계층 간의 정보 격차를 완충할 수 있음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하였다.

셋째, 문학(800)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 분야에서는 S.E.S 지표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거시적 데이터만으로는 지역주민의 다원적인 지식정보 이용 동기(예: 문화적 잡식성, 소세계 정보 빈곤 등)를 입증하는 데 설명력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와 동기를 심층적으로 규명하는 후속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역 맞춤형 장서개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넘어, 지역별 교육 투자 현황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수서 정책의 보완적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교육비 지출 등 거시적 환경은 특정 주제 장서의 수요와 밀접한 연관성을 띠므로,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해당 지자체의 교육 및 경제 지표를 참고 데이터로 연동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장서 보유 비중과 대출 양상 간의 강력한 영향 관계는 도서관의 선제적인 장서 큐레이션 서비스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정보 이용이 특정 주제 분야에 편중되더라도, 공공도서관이 다원화된 양질의 장서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큐레이션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면 이러한 편향성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선제적인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계층 간 지식정보 활용 격차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제약과 해석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모집단(N=25)으로 설정하여 전수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표본 오차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배제하였으나, 관측치 수 자체가 적어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내재적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독립변

수 중 교육비 지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녔을 뿐,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특정 대출의 경향성(방향성)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비록 서울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 밀집도가 높고 자치구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뚜렷하여 지식정보 이용의 양극화를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표본 공간이라 하더라도 제한된 관측치(N=25)로 인한 통계적 제약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단정적인 인과관계의 확증보다는 탐색적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계열적 중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정 시점의 단면만을 분석한 본 연구와 달리, 동일 지역을 다년간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사회경제적 자본 지표의 증감(원인)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특정 주제의 대출 비중 변화(결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 실제 행정구역은 인접 지역 간 도서관

인프라 공유나 거주민의 물리적 이동 등에 따른 공간적 파급 효과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크나,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OLS)을 적용함에 따라 이를 완벽히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Wooldridge, 2026). 본 연구는 탐색적 성격의 기초 연구로서 잔차의 독립성을 Durbin-Watson 지수를 통해 확인하여 OLS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Moran's I) 검증을 거친 공간계량모형 또는 다층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접한 자치구의 자본 및 장서 수준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공간적 영향력까지 통제한 심화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탐색적 논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향후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정보서비스를 기획하고, 지역 맞춤형 장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구본진, 장덕현 (2021). 공간회귀분석을 이용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접근성 영향 요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 67-87.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67>
- 국립중앙도서관 (2026a). 도담: 도서관 빅데이터를 담다 (10호). 도서관 정보나루.
출처: <https://www.data4library.kr/dataReport>
- 국립중앙도서관 (2026b). 빅데이터로 분석한 2025년 국민 독서 트렌드.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55169&schBcid=normal0302>
- 국민연금공단 (2025). 자격 시구신고 평균소득월액. 공공데이터포털.
출처: <https://www.data.go.kr/data/3046077/fileData.do>

- 권나현 (2018). 개인의 가치관과 공공도서관 이용간의 관계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43-164.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43>
- 김경근 (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선애 (2016). 도서관 예산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93-21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2.193>
- 김선애, 서혜란 (2009).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분석: 장서의 주제별 분포 및 노후화 현황.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1), 151-16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151>
- 김완중 (2014). 공공도서관의 주제별 자료 이용 현황 분석: 서울특별시 A구 산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3), 353-369.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353>
- 김은미, 서새롬 (2011). 한국인의 문화 소비의 양과 폭: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5), 205-233.
- 김주희, 유정원, 송인한 (2015).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령의 조절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5(3), 42-70. <https://doi.org/10.15709/hswr.2015.35.3.42>
- 김현석, 한성민 (2024). 지역불평등 양상과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6). 2025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libsta/board/statref/detail/14877.do>
- 박정미, 이유신, 오성은, 허수연, 김한성 (202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유아 이용기관 선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3), 57-86. <https://doi.org/10.22944/kswa.2023.25.3.003>
- 박종덕 (2019). 국가도서관통계자료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서울특별시 (2026).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소비-자치구).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출처: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167/S/1/datasetView.do>
- 서혜린 (2019).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민선, 심효정 (2025). 지역 인구 변화와 공공도서관 이용 간의 영향 관계 분석: Y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4), 101-121.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101>
- 심지영 (2021). 도서대출 데이터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 정보요구 분석: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8(2), 173-199.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73>
- 연지은, 김기영 (2018). 공공도서관 이용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jzen의 계획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401-423.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401>
- 오지은, 정동열 (2015). 공공도서관 장서평가를 위한 소장도서 이용도 및 핵심장서 분석에 관한 연구: 광진정보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5.49.1.201>
- 원종준, 안건혁 (2010). 공공도서관 입지 및 시설특성이 이용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

-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6(2), 79-86.
- 유경중, 박일중 (2008). 대학도서관의 대출기록 분석을 통한 이용조사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9(1), 109-129. <https://doi.org/10.1633/JIM.2008.39.1.109>
- 윤희윤, 김일영 (2011). 이용계수를 적용한 공공도서관 소설판서 평가. 정보관리연구, 42(4), 175-194. <https://doi.org/10.1633/JIM.2011.42.4.175>
- 이경진 (2020). 공공도서관 방문자수 및 자료실이용자수에 미치는 영향요인: 2018년 전국도서관통계를 바탕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105-12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105>
- 이상수, 이명진 (2014). 문화 선호와 참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 연결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5), 25-57.
- 이제호, 권선영 (2017). 아동문학상 수상작 이용 현황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의 아동문학 장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175-19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75>
- 이종욱, 강우진, 이명 (2021).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박탈이 공공도서관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 219-24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219>
- 이종욱, 박민숙, 나상오, 강우진, 박중규 (2025). 지역사회 특성과 공공도서관 이용 간의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3), 157-180. <https://doi.org/10.4275/KSLIS.2025.59.3.157>
- 이혜윤, 이지연 (2014). 공공도서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와 도서관 이용의 관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277-29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277>
- 장미혜 (2002). 한국 사회에서 사회계층별 소비양식의 차이. 경제와 사회, 53, 201-231.
- 전계형, 권선영 (2018). 경제요인이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1), 299-306.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299>
- 정현천 (2021). 보편적 가치관과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이용간의 관계성 분석: Schwartz의 보편적 가치이론을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조금주 (2021). 공공도서관 운영의 기본지표와 이용실적과의 상관관계 분석: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거주지별 · 학력별 · 소득별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52(4), 79-102.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79>
- 채정민 (2014).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227-228.
- 최셋별 (2006). 한국 사회에 문화 자본은 존재하는가? 문화와 사회, 1(1), 123-158.
- 최순애 (2008). 공공도서관의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도서관 이용 및 도서선택에 미치는 영향: 안양시 관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허선, 정연경 (2014). 대출기록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 연구: 강서 · 양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 국비블리아학회지, 25(4), 187-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187>
- 황희봉, 주은선 (202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2), 165-192. <https://doi.org/10.22418/JSS.2022.8.61.2.165>
- Baker, E. H. (2014). Socioeconomic status, definition. In W. C. Cockerham, R. Dingwall, & S. R. Quah (Eds.). *The Wiley Blackwell Encyclopedia of Health, Illness, Behavior, and Society*. Hoboken, NJ: Wiley-Blackwell.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tman, E. A. (1996).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3), 193-206. [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603\)47:3<193::AID-ASI3>3.0.CO;2-T](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603)47:3<193::AID-ASI3>3.0.CO;2-T)
- Chatman, E. A. (1999). A theory of life in the roun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50(3), 207-217. [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9\)50:3<207::AID-ASI3>3.0.CO;2-8](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9)50:3<207::AID-ASI3>3.0.CO;2-8)
- IFLA & UNESCO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vailable: <https://www.ifla.org/g/public-libraries/ifla-unesco-public-library-manifesto-2022/>
- OECD (2013).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Paris: OECD Publishing.
- Peterson, R. A. (1992).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21(4), 243-258. [https://doi.org/10.1016/0304-422X\(92\)90008-Q](https://doi.org/10.1016/0304-422X(92)90008-Q)
- Peterson, R. A. & Kern, R. M.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900-907. <https://doi.org/10.2307/2096460>
-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ooldridge, J. M. (2025).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8th ed.). 박상수, 한치록 옮김(2026). *계량경제학 1* (8판). 서울: 박영사.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e, Jung-Min (2014). Problems and their overcoming ways of socioeconomic status in human

- related research. In Proceedings of the 2014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27-228.
- Chang, Mi-Hye (2002). Consumption styles of social classes in Korean society. *Economy and Society*, 53, 201-231.
- Cho, Keumju (2021).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basic indicators of public library operation and usag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use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by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and incom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4), 79-102. <https://doi.org/10.16981/kliss.52.4.202112.79>
- Choi, SetByol (2006). Does cultural capital exist in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1(1), 123-158.
- Choi, Soon Ae (2008). The impact of users' perception of book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public libraries on their use of libraries and book choices: Mainly in libraries in Anyang Cit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Heo, Sun &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public libraries' user behaviors based upon circulation data in Gangseo and Yangcheo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187-20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4.25.4.187>
- Hwang, Hee Bong & Joo, Eun-Sun (2022). The effect of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on achievement motivation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the mediation of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61(2), 165-192. <https://doi.org/10.22418/JSS.2022.8.61.2.165>
- Jeon, Gyeahyung & Kwon, Sun Young (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conomic factors on library us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1), 299-306. <https://doi.org/10.15207/JKCS.2018.9.11.299>
- Jeong, HyunCheon (2021).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asic human values and the use of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Schwartz's theory of basic human value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Eun-mee & Suh, Saerom (2011). Profiling cultural omnivores in Korea: Quantity and breadth of cultural consump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55(5), 205-233.
- Kim, Hyunseok & Han, Sungmin (2024). A Study on regional inequal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Research Report Series No. 2024-03).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im, Joo-Hee, Yoo, Jung-Won, & Song, In Han (2015).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 on depressive mood: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42-70. <https://doi.org/10.15709/hswr.2015.35.3.42>
- Kim, Kyungkeun (2005). Educational gap in Korea and determinant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5(3), 1-27.
- Kim, Sun Ae & Suh, Hye-ran (2009). Examining the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subject and currenc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 151-164. <https://doi.org/10.14699/kbiblia.2009.20.1.151>
- Kim, Sun Ae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budget and library us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193-21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6.27.2.193>
- Kim, Wan Jong (2014). A study on collection use of an public libraries focused of the clustering analysis of circulation statistics of the Seoul borough A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3), 353-369. <https://doi.org/10.3743/KOSIM.2014.31.3.353>
- Koo, Bonjin & Chang, Durk Hyun (2021). Spatial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spatial accessibility of the public librarie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4), 67-87.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67>
- Kwon, Nahyun (2018). Personal valu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public library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43-164. <https://doi.org/10.4275/KSLIS.2018.52.2.143>
- Lee, Hye Yun & Lee, Jee Yeon (2014).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public librarie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and the library us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77-297.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277>
- Lee, Jongwook, Kang, Woojin, & Lee, Myeong (2021).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public library book circulation: A community-level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4), 219-24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219>
- Lee, Jongwook, Park, Min Sook, Na, Sangoh, Kang, Woojin, & Park, Jungkyu (202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public library u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3), 157-180. <https://doi.org/10.4275/KSLIS.2025.59.3.157>
- Lee, Kyeong-Jin (2020).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numbers of visitors and reference room

- users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the national libraries statistical data 201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105-125.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105>
- Lee, Sang-Soo & Lee, Myoung-Jin (2014). Variety of cultural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network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5), 25-5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6). Statistical survey results of public libraries 2025.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libsta/board/statref/detail/14877.do>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6a). Dodam: capturing library big data (Issue 10). Data4Library. Available: <https://www.data4library.kr/dataReport>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6b). National reading trends in 2025 analyzed by big data. Available: <https://www.nl.go.kr/NL/contents/N50603000000.do?schM=view&id=55169&schBcid=normal0302>
- National Pension Service (2025). Average monthly income reported by qualification city/district. Public Data Portal. Available: <https://www.data.go.kr/data/3046077/fileData.do>
- Oh, Ji-Eun & Jeong, Dong-Youl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of rate of use and core collection for collection evaluation in public libraries: In the case of Gwangjin district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1), 201-221. <https://doi.org/10.4275/KSLIS.2015.49.1.201>
- Park, Jeong Mi, Lee, Yushin, Oh, Seongeun, Huh, Soo Yeon, & Kim, Hansung (2023).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SES) and selection of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ECEC) institution.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5(3), 57-86.
<https://doi.org/10.22944/kswa.2023.25.3.003>
- Park, Jong-Deok (2019).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the use of public libraries using national library statistic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eo, HyeLin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public libraries and small librari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6). Seoul commercial district analysis service (consumption: autonomous district). Seoul Open Data Plaza. Available:
<https://data.seoul.go.kr/dataList/OA-22167/S/1/datasetView.do>
- Shim, Jiyoung (2021). Identifying information needs of public library users based on circulation data: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 Management, 38(2), 173-199.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173>
- Song, Min Sun & Sim, Hyo Jung (2025).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population dynamics and public library usage: A case study of City 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9(4), 101-121.
<https://doi.org/10.4275/KSLIS.2025.59.4.101>
- Won, Jong Jun & Ahn, Kun-Hyuck (2010). The effect of locational and facility characteristics on public library use: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2), 79-86.
- Yeon, Ji-Eun & Kim, Giyeong (2018). A study for identifying affecting factors on the intention of public library use: Based on Ajzen's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401-423.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401>
- Yi, Je-Ho & Kwon, Sun Young (2017). A study on children's collection development for public library based on library usage of children's book awa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175-199.
<https://doi.org/10.4275/KSLIS.2017.51.1.175>
- Yoo, Kyeong-Jong & Park, Il-Jong (2008). A study about the use survey by the circulation record analysis of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109-129.
<https://doi.org/10.1633/JIM.2008.39.1.109>
- Yoon, Hee-Yoon & Kim, Il-Young (2011). Evaluation of the fiction collection of public libraries based on use factor.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4), 175-194.
<https://doi.org/10.1633/JIM.2011.42.4.175>